

# 농어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개선 집중

### 전북도, 2022년도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 시설 · 장비 개선 총 77억원 보건복지부에 신청

전북도는 '202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예산 77억 원이 소요되는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년도에 시설개선 22개소(85억 원) 및 의료장비 159대(11.5억 원), 차량 13대(3.5억 원) 등 총 88개소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부안군 행안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만성질

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읍시 유정보건진료소, 김제시 백구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19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약 2,078억원을 투자, 도내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개선을 통해 보건 의료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현황에 맞는 시설 · 장비 보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본격 추진

### 3개 수행기관서 자립지원 ·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 제공

전북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도내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영양교육, 성인 전환기, 성인권)'을 본격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장 변화에 맞춰 양육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부터 성(性)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이다.

'전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5월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해 영유아기(마음나무 인성상담교육협회 익산시지부), 성인전환기(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성인권(안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부모교육 부분 사업 수행기관 각 1곳씩 총 3개 기관을 선정 한 바 있다.

각 수행기관은 7월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발달장애인 가정 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휴가철 도내 야영장 83개소 오수처리 실태 시 · 군 합동점검

전북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10일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 시 · 군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도내 야영장 127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44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83개소다.

이번 특별점검은 83개소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 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 ·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 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휴가철 야영장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공공수역의 수질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숲길 자원정보 수집 기간제 근로자 모집

###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 숲길 조사인력 · 사무보조 139명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손중호)는 '숲길 자원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숲길 조사인력 130명과 사무보조 9명을 오는 18일까지 연장에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자원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숲길 조사인력 130명과 사무보조 9명을 오는 18일까지 연장에 채용한다.

채용한다고 밝혔다.

'숲길 자원정보 수집'은 산림청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으로, 국내 4천여 개 봉우리에 대한 숲길 자원정보를 수집해, 전국 숲길을 통한, 연결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센터는 데이터 구축 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민간에 이를 제공, 국민이 숲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총 130명으로,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8일 오전 12시까지 전자메일로만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숲길관광실(042-620-63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전한 등산 · 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 및 전국 숲길 관리,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등산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유호상 기자

## 농촌융복합산업 선두 주자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두손푸드 구봉규 대표' 선정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주식회사 두손푸드(이하 두손푸드) 구봉규 대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봉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마시능죽(스파우트 파우치에 담은 유동성이 있는 죽) 제품을 개발(2011년)하고, 유 · 아동과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시 하는 메디컬푸드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육수수수염차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성과를 가지고, 1년 이상 냉장보관해도 상하지 않은 연구를 통해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쌓은 식품 노하우를 두손푸드에 적용해, 거품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요양병원 환자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시는 죽'을 개발하고, 발생된 매출의 지속적 기부로 통해 1억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다.

두손푸드는 지역농가와 연계한 배를 통해 원료를 조달하고(1차),

죽, 영유아식, 유제품, 스프 등을 제조 · 가공(2차)하며, 다양한 판로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또한,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 농산물 직접 매입 등을 통해 단호박, 팥, 귀리, 고구마 등(60톤)을 조달하고, 기업 부설연구소를 통해 녹색 산업의 기능성 대용식 시장 진출로 지역 농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독거노인, 영유아, 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취약계층 전문화 육성으로 안정된 고용창출을 이루고,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고령자, 이주민 등 보장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두손푸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개발을 통해 국내 · 외 다양한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선두 주자"라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최선

### 전북도, 우체국 소핑몰 입점 기업 추가 모집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체국 소핑몰 입점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우체국 소핑몰에 '전북 사회적경제 기업 브랜드관'을 운영, 매출 증대와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도내 50개 사(410여 제품)가 입점한 브랜드관은 할인쿠폰 발행과 카카오톡, G마켓 등 제휴마켓 등과 연계한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며, 5개월 만에 14억 5천만 원이라는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

전북도가 이번 브랜드관에 입점할 모집 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지난 9일부터 모집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쿠폰비(10~30% 내외) 일부 지원, ▲상품컨설팅 및 온라인 콘텐츠(촬영, 상품기술향) 제작 ▲우체국소핑 제휴 외부 판매채널(11번가 등)과 연계된 상품홍보 ▲특가 프로모션(슈퍼위클리, 소핑25시 등) 등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신청하면 되고,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의 입점 심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www.jbsecoo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제품 가격경쟁력이나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